

모든 고통은 '갈애'에서 나온다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9. 인간의 욕망에 관해서 ①

욕망의 두려움을 강조하는 뜻
 욕망 그 자체에 대한 붓다의 사유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한번 경전을 펴며 붓다의 수많은 교법을 읽을 때, 거기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이해와는 전혀 다른 인상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서 붓다는 여러 가지 강조(強調)와 비유로써 도처에서 욕망의 무서움을 말하며 이욕을 권유하고 있다.

아마 세계의 모든 사상가(思想家)나 종교가(宗教家) 가운데서 이 분처럼 욕망의 무서움을 강조한 사람은 없으리라.

욕망의 무서움은 어떤 때는 사나운 홍수(洪水)에 비유해서 설명되어 있다. 애욕(愛慾)에 취하여 쾌락에 온 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분류(奔流)에 휩쓸리고 말 것이다. 그러한 설명을 우리들은 붓다 교법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욕망의 무서움은 또 자주 맹화(猛火)에 의해서 비유되기도 한다. 탐욕(貪慾)을 품으며 그 무서움을 모르는 자는 바람을 향해서 햇볕을 들고 있는 것에 비할 수 있으며 만일 빨리 버리지 않는다면 사나운 불은 곧 그의 온 몸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러한 설명 방법으로, 탐욕의 무서움과, 이욕(利慾)의 권유를 강조한 일도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강조와 비유로써 이야기한 욕망의 무서움과 이욕의 권유는 붓다 제자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새겼을 것이 틀림없다. 오늘날 경전을 펴며 남겨주신 가르침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들도, 역시 이러한 강조와 비유에서 강한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서 붓다의 가르침은 욕망을 일반적으로 부정한다는 막연한 인상이 생겨나기 쉽다. 이런 것은 오늘날 불교에 뜻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끔 실수(失手)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나는 우려한다. 혹은 또 이런 것이 불교와 근대인(近代人)의 의식 사이에 쓸데없는 틈을 만들게 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다.

유럽의 사상사(思想史)를 읽는 사람은,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해가 고대(古代)와 중세(中世)와 근대(近代)에 있어서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고대와 중세는 그 정도가 다르지만, 그러나 인간의 욕망에 관해서 부정적이었음은 한결같다. 그것과는 달리 근대는 매우 분명하게 인간의 욕망에 관해서 긍정적이다. 근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인간의 욕망에 큰 뜻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벌써 사탄(악마)의 짓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히 이것을 억누른다는 일이 좋은 인생의 실현의 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영위(營爲)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모두 그 뿌리는 이 욕망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다. 아마 근대의 욕망관은 그 방종(放縱) 때문에 당연히 비난 받아야겠지만, 이러한 인간 욕망의 뜻의 발견에 있어서 중세, 고대의 그것에 비할 수 없는 큰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붓다의 욕망관이 일반적으로 부정하며 억누름으로써 욕망을 억제하려고 가르치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그러한 것에 있어서 실수하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의 불교와 우리들 사이에 의식의 틈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다시 주의 깊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욕망관을 살펴보면 부처님의 소설(所說)의 이점에 있어서도 우리들을 실수하게 하며 우리들을 실망(失望)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가 설명하는 것은 그 방종(放縱) 때문에 비난받게 되는 근대의 욕망관을 정정(訂正)할 수 있는 원리 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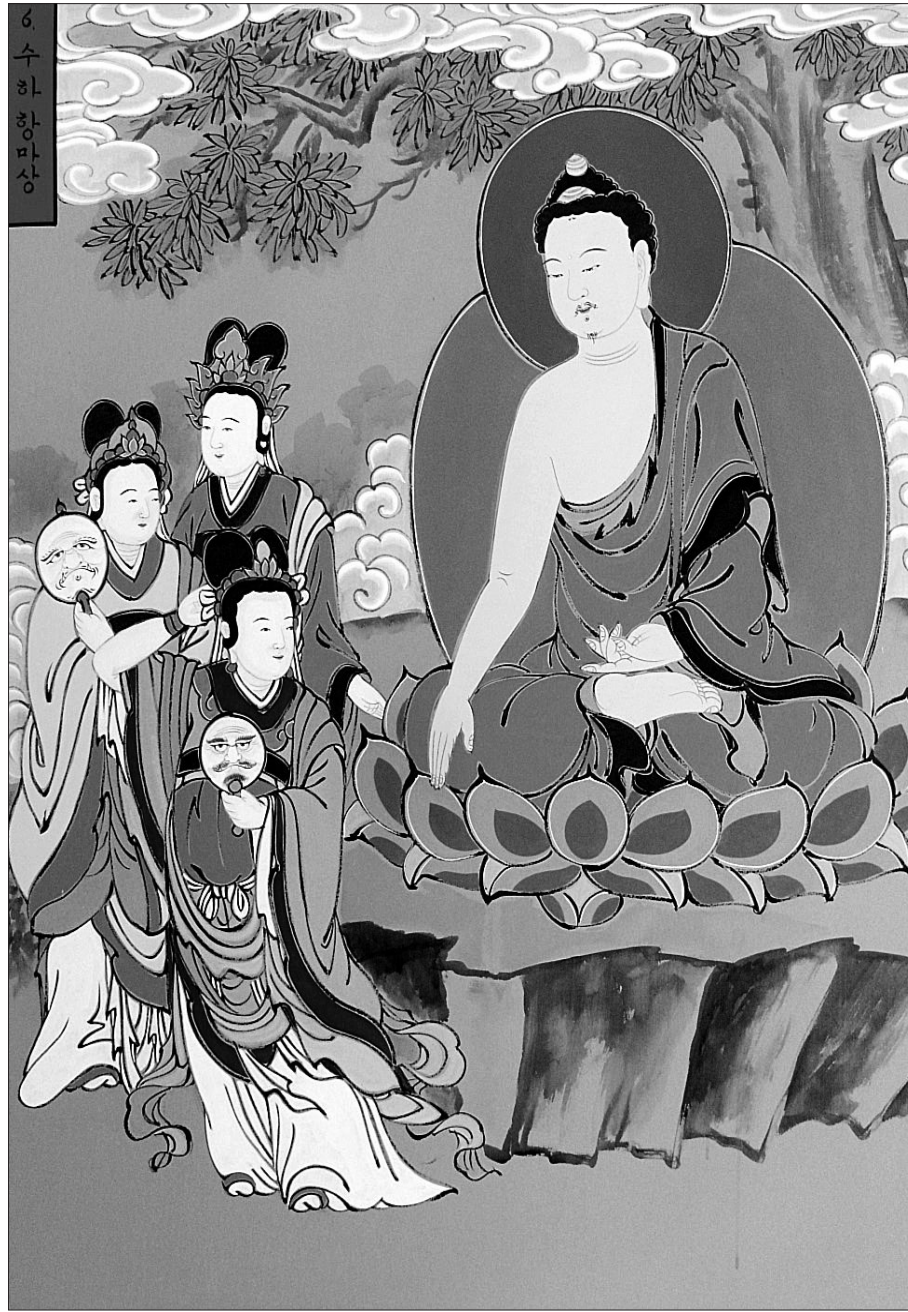
욕망에 관한 술어(術語)
 그러면 우리들은 다시, 주의 깊게 붓다의 욕망관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욕망의 무서움을 설명할 때, 붓다는 대개 욕망 그 자체를 표현하는 말이 아닌 욕망의 여러 가지 작용을 표현하는 말을 쓰고 있다. 우리들은 먼저 그 신중한 용어법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제이 및 제삼의 '성스러운 명제'에서 욕망의 문제에 언급할 때에도 석존은 신중하게도 '갈애(tanha)'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갈애'란 앞에서 말하였듯이 갈(渴, 목마름)그 자체를 지적하는 말로써 욕망(愛)의 사나운 작용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이 고(苦)의 인생이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목마른 자가 심히 물을 구하듯이 사납게 작용하는 욕망의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고(苦)의 인생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러한 욕망의 작용을 남김없이 멸하는데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붓다의 주의 깊은 설명 방식을 우리들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또 예를 들면 '탐욕(raga)'의 경우도 그러하다. 이 용어는 원래 '적(赤)' 혹은 '연소(燃燒)'를 뜻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며 불꽃에 비할 수 있는 욕망의 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한역(漢譯)이 이것을 '탐(貪)내는 욕(慾)'이라고 하였을 때, 그 원래 갖춘 뜻의 감각은 없어졌지만 그것도 또 욕망 그 자체는 아니며 욕망의 사나운 작용을 표현하는



팔상성도 중 하나인 수화함상. 나무 아래에 걸가부좌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을 방해하는 마군들의 온갖 유혹과 위협을 물리치고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장면들이 주로 묘사된다. 부처님은 욕망에 있어 탐욕과 갈애와 같은 감정들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데는 성공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붓다가 끝까지 욕망 그 자체는 무기(無記), 그 악한 작용이야말로 이 고(苦)의 인생의 근원인이라고 생각하였을 명백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경전 속의 붓다 교법이 가끔 '소욕'이 칭찬되며, 지족(知足)이 강조될 이유가 있었는가. 우리들은 여기에서도 또 붓다가 욕망 그 자체는 어디에서나 무기(無記)이며 도(度)를 지나친 작용이 악한 인생을 생겨나게 한다고 생각하였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붓다는 어찌하여 이렇게 욕망의 무서움을 설명하는 것에만 급급(急急)하였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중도(中道)라는 그분의 가르침으로 설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중도(中道)의 '중(中)'이란 것은 수학적(數學的)인 중(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붓다는 설명하였다.

욕망의 작용은 먼저 그 도(度)가 너무 지나침을 엄격하게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욕망하는 것이 너무 적은 측면은 별로 경계할 필요가 없다. 무서운 것은 폭력 같은 애욕(愛慾) 맹화(猛火)같은 탐욕(貪慾),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 같은 갈애(渴愛)이다. 그렇다면 붓다가 전적으로 애욕의 무서움을 설명하며 탐욕의 무서움을 말하며 갈애야말로 이 고(苦)의 인생의 원인이라고 설명한 것의 뜻도 또한 분명하게 이해되는 것이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욕망관은 한편에서는 금욕고행을 칭찬하였던 고대(古代)의 욕망관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그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방종(放縱)으로 흘러버린 근대(近代)의 욕망관에 대해서도 또한 하나의 정정(訂正)의 원리를 품고 있는 것이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합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佛에 천지조화 이치가 있다

문 고대의 말과 같이 부처님의 본체는 태극(太極)이고, 작용은 건곤(乾坤)이므로 운동변화가 천지와 함께 유행한다 함은 알겠다. 그렇다면 천지조화의 오묘한 내용이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보다 자세함이 없는데 부처님은 미처 의논하지 않았음은 무엇 때문인가.

답 하도·낙서의 내용을 부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심이 극진하나 사람이 스스로 살피지 못하니 비유하면 마치 눈이 먼 자가 해의 밝음을 알지 못하고 같다.

부처님이 나타내 보이심이 반드시 삼신(三神)을 갖추시는데, 삼신이란 것은 법신(法身)·보신(報身)·화신(化身)이다. 법신의 수인(手印)을 맺으심이 좌·우를 합하여 한 주먹으로 하심은 그 체를 보이심인데, 주역(周易)의 무극(無極)으로부터 태극이라 함이 이것이다. 무극이란 것은 담적허명(湛寂虛名)하여 십허(十虛)를 포괄함으로 말함이고, 무극의 중앙을 다하여 영묘(靈妙)함이 발동하려 함이 태극인데, 태극이란 것은

또한 천축은 세계의 중심으로 모든 교법(教法)이 다 그 가운데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주점(住劫)의 시초에 오지(五地)·육지(六地)·칠지(七地)보살이 본원력(本願力)을 받들어 세간에 시현(示現)하여 임금이 되고, 신하가 되고 구류학파(九流學派)가 되고, 백공(百工)이 되어 널리 세간의 갖가지 법을 일으키고 세계를 장엄하여 중생을 열어 인도하였는데 일체 전적(典籍)을 다 닦지 않았음이 없었어, 그 책의 다름이 육십사종(六十四種)에 이르니, 여찌 홀로 하도·낙서만 그 가운데 없었겠는가.

『유마경(維摩經)』에 말씀하신 바 "경서주금술(經書呪術)과 공교(工巧)한 모든 기예가 다 나타나 이 일을 행하여 모든 중생을 넉넉하고 이익되게 한다" 함이 이것이다.

유자는 이로써 불교를 이기기를 구하니 황하(黃河)의 수신(水神)인 하백(河伯)이 스스로 자기가 처해 있는 물이 제일이라 뽐내고 다시 큰 바다가 있음을 알지 못함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 문자를 지칭하여 범서(梵書)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가 처음 이루어졌을 때

부처님 지견은 광대하고 심원해 항하사 세계를 모두 밝히신다

묘명(妙明)을 함축하여 육합(六合)에 충만하게 가득찬 것을 말한다.

유자(儒者)는 외물(外物)을 관찰하지만 부처님은 곧 자기 몸에 총괄하시고, 유자는 외부로 전공하지만 부처님은 곧 내부를 밝히시는데, 이것이 유자와 부처님이 되는 까닭이다.

하도·낙서를 불서(佛書)에 실지 않은 것과 같은 곧 천축(天竺)에 항상 외전(外典)의 가르침이 행하여 마침내 이미 진부하게 쓰고 남은 찌꺼기가 되었기 때를 유자(儒者)는 외물(外物)을 관찰하지만 부처님은 곧 내부를 밝히시는데, 이것이 유자와 부처님이 되는 까닭이다.

하도·낙서를 불서(佛書)에 실지 않은 것과 같은 곧 천축(天竺)에 항상 외전(外典)의 가르침이 행하여 마침내 이미 진부하게 쓰고 남은 찌꺼기가 되었기 때를 유자(儒者)는 외물(外物)을 관찰하지만 부처님은 곧 내부를 밝히시는데, 이것이 유자와 부처님이 되는 까닭이다.

또 부처님의 지견은 광대하고 심원(深遠)하시어 불안(佛眼)으로 보는 바는 밝게 항하사(恒河沙) 세계(世界)를 다왔는데 유혹 하도·낙서만 살피지 못하셨겠는가.

『화엄경(華嚴經)』에는 다지바라문이 감로화왕(甘露火王)의 내외덕상(內外德相)을 찬탄하되 중국에서 점을 치는데 사용했던 원구(元龜=큰 거북)를 인용하였는데, 그렇다면 천축에서 이 법을 사용한 지가 또한 이미 오래되었음을 알 것이다.

에 텅 비어 인·물(人·物)이 없었는데, 광음천인(光音天人)이 과보가 다해 하래(下來)하였다. 물에는 광명이 있었고 발은 구름을 밟는 것 같았는데 지상(地上)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 몸이 견고하고 무거워져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 세간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저 하늘의 언어문자를 가지고 세간에 유포하였으므로 범서라 호칭했으나, 그렇다면 그 문자와 인·물이 함께 나왔으므로 중국에서 결승문자(結繩文字)로써 정치를 한 것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

동하(東夏=中國)에서 말하는 성인이라는 자도 또한 다 대권(大權)보살의 시현(示現)이다.

『공적소문경(空寂所問經)』에는 말하였다.

"가섭을 저쪽에서는 노담(老聃=老子)이라 칭하고, 유동(儒童)을 공구(孔丘=孔子)라 칭한다."

그렇다면 그 법이 천축에서 시작되어 이 땅에 동점(東漸, 세력)을 동쪽으로 옮긴 것이 분명하다.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디자인 등록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명		규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북 용두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다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원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